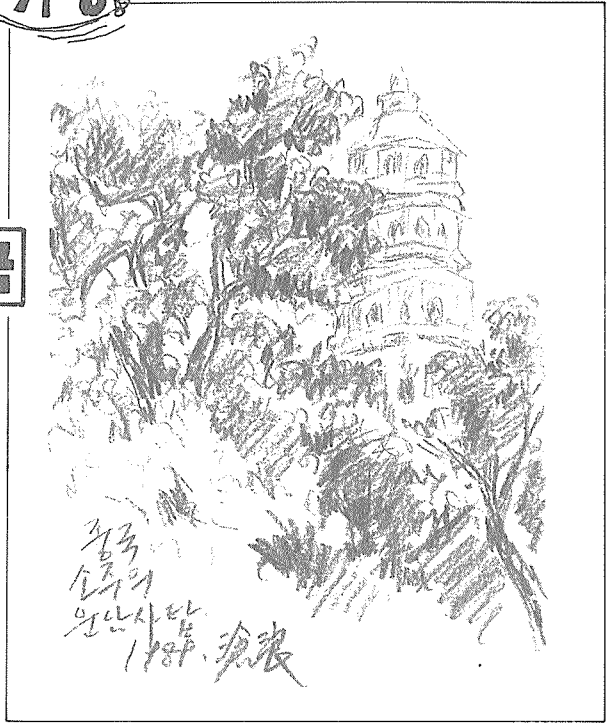


종국

대륙의 장막을  
헤치고 (5)

배순덕



▲호구(虎丘)탑-호구탑은 일명 운암사탑이라고도 한다.

모닝 콜 소리에 놀라 눈을 비비고 일어났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신 새벽. 커튼을 젖히니 뿌우연 안개가 새벽 미명파 함께 일어서고 있었다.

서둘러 짐을 챙기고 호텔 앞에 대기해 있는 버스에 올랐다. 상해역에서 소주행 기차를 타고 나니 그때서야 창 밖이 훤히 밝아오기 시작한다. 호텔에서 준비해 준 빵과 음료수로 아침식사를 대신하고나니 오랫동안의 포만감에 졸음이 슬슬 몰려오기 시작했다. 향료와 기름으로 뒤범벅이 된 중국음식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 하던 중에 토스트와 음료수는 그나마 구세주와 같

은 식사였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개슴츠레해진 망막사이로 한가한 농촌의 풍경들이 끊임없이 밀려온다. 검은 색의 기와를 얹은, 조금은 우중충한 듯 하면서도 중후해 보이는 농가의 집들과, 뿌우영게 흙탕빛이 감도는 수로를 따라 대나무 샷갓에 길다란 장대 노를 저어가는 농부의 모습이 가끔씩 눈에 들어왔다.

참말 가슴이 찌르르 할 정도로 신선해 보이는 그 풍경에 졸음이 확 달아나곤 했다. 창 밖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역이 아닌 데도 기차는 가끔씩 섰다. 우리가 탄 기차

칸은 일반인은 출입할 수가 없고 외국인이나 일정수준 이상의 국내 귀빈들만이 사용하는 연좌차(軟座車)라고 하는데 서로 마주보고 있는 비좁은 좌석사이로 작은 탁자가 놓여있고 탁자 위에는 화분이 하나씩 놓여 있었다. 승객이 원한다면 켄 맥주를 팔거나 뜨거운 녹차를 제공해 주는 서어비스가 있는 차칸이다.

장쑤성(江蘇省)의 남동부에 있고 걸어서도 돌 수 있다는 작은 도시 쑤쑤우(蘇州). 인구 110만의 오랜 역사를 지닌 蘇州는 춘추전국시대에는 오나라의 國都였고 그 후에도 역대에 걸쳐 주변지역의 행정 중심지로 중시되어 왔다.

23km성벽으로 둘러싸인 구(舊)성안과 그 바깥의 신시가지로 나뉘는데 시내 곳곳에 운하가 잘 조성되어 있어 물의 도시라고 불리기도 한다.

사람들은 운하에서 세수도 하고 쌀과 야채도 씻는다. 비좁은 운하를 따라 늘어선 집들과 삐꺼덕 삐꺼덕 좌우로 노를 저으며 그곳을 오가는 작은 나무배를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운하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고리일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이며, 우리네의 도로 만큼이나 편리한 교통로의 하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또 소주에는 옛날에 관료나 지주들이 꾸민 정원이 많아 정원의 도시라고도 한다. 중국의 4대 명원(名園)중에 대도시가 아닌 소주에 2개의 정원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 두 정원인 유원(留園)과 줄정원(拙政園)을 관람하고 한산사로 향했다.

詩 가운데 禪이 있다고 읊었던 당나라의 시인 한산(寒山)이 말년에 머물렀다는 절 한산사(寒山寺). 남북조시대(502~509년)

虎丘劍池 ▶  
검지는 오나라 왕  
합려의 묘이다.



에 처음 창건되어 다섯번에 걸쳐 소실(消失)과 재건을 되풀이해 왔으며 지금 있는 건물은 청나라 말년(1911년)에 중수된 것이다.

山門앞을 흐르는 운하를 사이에 두고 반월모양의 둥근 다리가 있고, 운하의 양변에는 집들이 즐비하다. 당나라의 두 기인(奇人) 한산과 습득(捨得)의 화상이 희미하게 남아 있는 대웅전벽화와, 하늘을 찌를 듯이 날카롭게 솟아오른 처마끝과 고색창연한 건물의 단청, 향로모양의 기묘한 탑, 그 사이사이를 관람객들은 끊이지 않고 몰려드는데 절 안에는 이상하게 스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기이한 풍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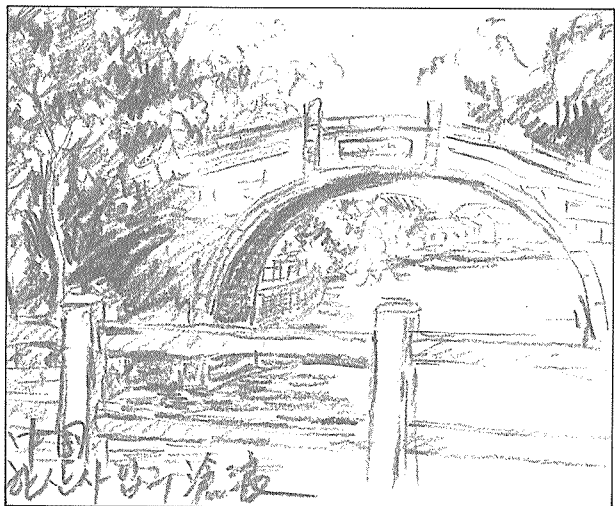
그래서일까? 절은 그 웅자한 자태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아이처럼 스산하고 허허로워 보인다. 그나마 그러한 허허로움을 달래주는 건 절 마당 한쪽 귀퉁이에 설치

되어 있는 초 꽃이에서 붉은 양초를 열심히 태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스님이 없어도 사람들은 열심히 초를 태운다. 무엇을 기원하는 걸까?

우리나라의 사찰에서처럼 절을 하거나 두손을 합장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일렁이는 불꽃에 반사되는 순박한 눈빛에는 간절함이 배어있다. 국가와 인종을 막론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워 보인다. 그 모습이 특히 허름한 옷 차림에 꾸밈없는 몸짓일 때 더욱 찡하게 가슴에 와 닿는다.

예외없이 절 한켠에는 기념품점이 있었다. 그 기념품점의 한쪽 모퉁이에서 스님을 만났다. 회색빛 먹물옷을 입고 머리를 깎은 채였으나 목탁을 두드리거나 염불을 하는 수도자의 경건한 모습은 아니다. 오래 전부터 구석진 그 자리의 주인인 듯, 책

소주의 한산사(寒山寺) ▶  
입구 풍경



상위에 낚은 담요를 깔고, 벼루에는 먹을 갈아 놓은 채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몰려들면 붓끝에 먹물을 찍어 벽걸이용 긴 종이 위에 단숨에 큰 글자들을 써 내려갔다.

사람들은 돈을 내고 그 글을 들고갔다. 어찌어찌 써 달라고 즉석에서 주문을 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써 놓은 글 중에서 골라 돈과 맞 바꾸기도 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일상적인 일인듯 했으나 내게는 어쩐지 어색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나라의 사찰과 스님의 모습에 견주어져서 더욱 그랬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어색하고 씁쓸한 느낌을 뒤로 하며 호구(虎丘)로 발길을 돌렸다.

한 동안 개이는 듯 하던 날씨가 갑자기 희뿌연 물 안개를 앞세우고 또 다시 빗방울을 흩뿌리기 시작한다. 비웃을 사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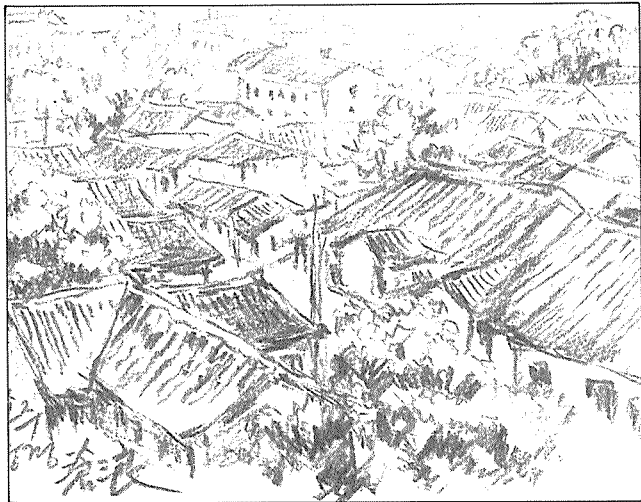
기념품을 팔고있는 노점상을 기웃거리니 여기 저기서 제 물건을 사라고 아우성이 다.

값을 물어보아도 대답하는 것조차 귀찮아 할만큼 불친절하고 투명스러워 보이던 국영상점에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진솔한 삶의 모습이다.

가격도 천차만별이어서 똑 같은 비웃을 가지고도 몇 곱절의 차이가 났다. 그렇지만 깎아주는 것도 시원스럽고 사는 것도 재미가 있었다. 개방되고 변화하는 중국의 힘찬 삶의 모습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

비웃을 걸쳐입고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스케치북을 옆구리에 낀 채 돌아서 보니 일행이 오간데 없다. 지도하나 변변히 챙기지 못하고 따라나선 터라 처음에는 “아차”하는 생각에 당혹감이 앞섰다. 이곳저곳 찾아보았으나 흔적도 없다. 때 마침 멀

北寺塔(북사탑) ▶  
위에서 내려다 본  
소주 시내 풍경



우리나라의 사찰에서 저림 절을 하거나 두손을 합장한  
 모습은 아니지만, 입렁이는 불꽃에 반사되는 순박한  
 눈빛에는 가절함이 배어 있다.  
 국가와 인종을 막론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  
 그 모습이 특히 아름다운 오자림에 꾸미어놓은 몸짓일 때  
 더욱 짙하게 가슴에 와 닿는다.

리 비 안개에 뒤덮인 숲위로, 호구탑의 희미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塔從林外出 山向寺中藏

(탑은 숲 위로 솟아 있고, 절은 그 산 속에 감추어져 있네)

옛사람은 虎丘의 산을 이렇게 읊었다는데, 호구탑은 바로 그 詩 속의 모습 그대로 비안개에 젖은 숲 위에 우뚝 솟아 있었다. 피사의 사탑처럼 삐딱하게 기울어진 탑을 바라보며 완만한 비탈길을 올라 절 입구에 다다르니 ‘천인석(千人石)’이라는 편편하게 펼쳐진 넓은 바위가 눈에 띈다.

그 옛날 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바위 위에 앉아 고승의 설법을 들었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일행을 놓쳤다는 생각도 잊어버린 채 바위 위에 걸터앉아 여기저기 스케치를 하고 있는데 나를 찾아나선 L선생이 내앞으로 다가서며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는다.

虎丘(후치우)는 춘추 전국시대 오나라 왕 합려의 묘이다.

원래의 海涌山이라는 이름이 호구로 바뀌게 된 것은 합려를 장사지낸 뒤 삼일만

에 흰 호랑이가 나타나 그의 무덤위에 꿇어 앉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것은 기원전 550년의 일이고, 그 후 팔백여년이 지난 뒤 동진이라는 나라가 들어섰을 때 왕민 형제가 여기에 별장을 짓고 호구산사(虎丘山寺)라는 이름으로 고친 것이 이 절의 시작이다.

천인석(千人石)위에서 탑쪽을 향해 바라보면 맞은 편 벽에 ‘虎丘劍池’라는 빨간 글씨가 눈에 띈다. 검지(劍池)는 오나라 왕 합려의 묘를 말한다. 蘇州는 옛날 오나라의 땅으로 명검(名劍)이 많이 나는 곳으로 유명했는데, 합려가 죽은 뒤 그의 애검(愛劍) 3천자루도 함께 부장했다고 한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그후 세월이 지나 진시황제(기원전 259~210)와 오나라의 손권(182~252)이 사람을 파견하여 부장된 검을 찾게 하였으나 한자루도 찾지 못했다는 일화가 전해오고 있다. 그것이 과연 진실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넓은 국토와 수역의 인구를 가진 노대국의 설화 또한 방대함을 느낀다. ㉔

〈필자=화가. 호는 창랑(滄浪)〉